

자본주의 중국에서 부동산 거품

형다, 화양넨, 시닉이 글로벌 투자자들을 떨게 하다

미하엘 프리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서기, 2021년 10월 6일,
www.thecommunists.net

편집 주: 이 문서에는 그림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데, 기술적인 이유로 아래의 PDF 판에서만 이 그림을 볼 수 있다.

2019년 가을에 시작된 자본주의 세계경제 대공황이 중국도 휘감고 있다. 중국이 세계 제조업선도국 (세계 생산량의 28.7%를 차지하는)으로서 글로벌 자본주의의 핵심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1]

우리가 최근 글들에서 지적했듯이, 세계경제는 (지난 2019년 가을~2020년 여름의 첫 번째 침체에 이어) 두 번째 침체로 치달고 있고, 이러한 침체 돌입에 중국의 경제위기가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2] 이 글에서 우리는 중국의 위기가 가장 집약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 부동산 분야를 다룰 것이다. (중국 자본주의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분석으로는, RCIT의 다른 문서들을 독자들에게 권한다.[3])

최근 몇 주 동안 헝다그룹 (에버그란데)을 비롯하여 화양넨홀딩스 (판타지아)와 신리홀딩스 (시닉) 등 몇몇 부동산 재벌들이 (수조 원 대의) 이자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 헝다 한 그룹만도 부채가 총 1조 9700억 위안 (약 356조 원)으로, “중국 GDP의 2%에 해당하는 액수이며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큰 빚더미 중 하나일 것이다.”[4] 실제로 이들 부동산 재벌들은 모두 비틀거리며 파산 직전 상태에 와 있다. 그 결과 주식시장에서 이들 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고 있다. 헝다의 주가는 연초 이래로 80%나 하락했다.

이러한 사태전개는 거품과 투기를 특징으로 하는 금융 부문이 중국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 요소가 되어 있는 것을 반영한다. 또 지난 수십 년 동안 금융 부문의 눈부신 성장이 상당 부분 허구적, 의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또 중국의 성장이 — 특히 2008/09년 대침체 이래 지난 10년간의 성장이 — 부채 급증에 바탕을 두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늘어나는 부채

중국의 부동산 부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엄청난 속도와 비율로 성장했다. 199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중국 GDP에서 부동산 투자가 점하는 비율을 보면, 1995년 5%에서 2019년 13.5%로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이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로 시작된 스펙터클한 파산 물결이 있기 전, 미국 부동산 거품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 수치는 7%였다.[5]

중국의 대대적인 부동산 팽창은 많은 부분 부채에 의해 자금이 조달되었다. 주로 도시 중간 계급 출신의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새 집을 구입했다. 그 결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18%에서 2018년 말 60%로 빠르게 증가했다. 오늘, 주택담보대출이 총 가계부채의 70% 이상을 차지한다.[6]

새로운 생활공간을 위한 주택 구입보다 투기를 통한 이윤 획득 동기가 부동산 부문 팽창의 주된 동력으로 자리 잡은 지가 이미 십년이 넘었다. 2008년에 신규 주택 구입자 가운데 이미 하나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30%에 “불과”했다. 10년 후, 이 비율은 87%로 증가했다. 즉, 신규 주택 구입자 10명 중에 거의 9명이 살 곳을 찾아서가 아니라 임대 용도로 또는 다른 사람에게 팔기 위해서 추가 주택을 구입한 것이다.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 어디에도 소득 대비 주택 구입비용이 중국 도시보다 더 비싼 곳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주택 가격 대 임대료 비율을 기준으로 할 때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 5곳 중 4곳이 중국이다. (선전, 베이징, 홍콩, 상하이). 선전의 이 비율은 도쿄와 런던의 두 배,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의 네 배다!

중국의 거대 부동산 기업들이 파산하면, 전체 경제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2016년에 부동산과 건설업을 합치면 중국 GDP의 약 29%를 점했다. 이들 부문은 일자리 창출에도 매우 중요한데, 도시 비(非)농업 민간고용의 약 20%를 담당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은행권 자산의 약 41%가 부동산 부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7]

세계경제에서 중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전 세계의 자본주의 투기꾼들과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시장의 채무불이행이 낳을 결과를 놓고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유로존 최대 은행인 프랑스의 BNP파리바는 투자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라시를 냈다. “우리는 헝다의 3천억 달러 미결 부채 중 500억 달러 가까이 은행 대출로 조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지난 한 주 동안 투자자들은 공급망 (상품)과 사회안정성 (건설 노동자, 주택 구입자)과 신용스트레스 (중국 고수익 채권의 리스크 경감)로 번질 전염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중앙정부가 상대적으로 헝다 사태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서다.”[8]

연착륙?

부동산 부문의 막대한 비중을 감안할 때, 중국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은 "연착륙"을 확실히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그러한 방향을 가리키는 첫 번째 신호는 중국 중앙은행이 지난 2주 동안 유동성 확대를 위해 8200억 위안 (약 145조원)을 금융시장에 쏟아부었다.[9]

중국 자본가 정권이 대규모로 개입하지 않으면 관련 산업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자본가와 중간계급 상당 부분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가뜩이나 긴박한 정치상황에 그런 시나리오가 폭발적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정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저명한 언론편집인 리광만(李光滿)은 최근 "적절한 개입이 없으면 중국 경제와 사회는 언제든 죄다 불붙을 수 있는 화산 분화구에 놓일 것이다"라고 경고했다.[10]

그러나 정권이 개입해서 자본가들을 구제한다고 해도, 그로 인해 또 공공부채가 대폭 늘어날 것이므로 경제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020년 3분기에는 GDP 대비 총 부채 비율이 288%로까지 상승했는데, 이는 2008년 (약 150%)의 거의 두 배 규모다.[11] 세계은행은 최신 중국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현 시장금리로 볼 때, 중국의 대규모 부채는 GDP의 10%를 초과하는 상당한 이자 부담을 안고 있다. 비금융 부문 신규 대출의 3분의 1 이상이 기존 부채 원리금 지급에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12]

투기가 활발해지는 것은 중국 자본가들이 생산적 부문에서 높은 이윤율을 창출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다. 실제로 중국의 이윤율은 1990년대 중반 이래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아래 부록 그림에 있는 수치 참조).

몇 가지 결론

1. 첫째, 중국이 또 한 차례 경기침체에 근접한 것은 명백하다. 우리가 세계경제의 두 번째 침체에 관한 최근 글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세계 산업생산이 지난 몇 달 동안 감소했고, 전력난을 맞고 있으며, 부동산 부문 — 지난 10년 동안 가장 빠르게 커진 경제 부문 — 은 파산 직전이다. 깊은 침체를 피하기 위해 중국 자본가 정권은 경제에 대대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추가 부채로 인해 결국 향후 몇 년 동안 이자 지급 증가와 성장 저하로 결과할 것이다.

2. 이러한 사태발전은 극적인 정치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직전 시기에 이미 중국 스탈린 주의-자본가 정권은 홍콩 민주화운동 진압을 위한 잔학한 개입과 계엄령 식 록다운 정책을 통해 정치적 통제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14] 또 모든 형태의 "비애국적" 행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위기로부터 대중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애국주의와 배외주의를 부추기고 대만을 겨냥해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 며칠, 중국 자본가 정권은 대만 섬 상공에 띄우는 전투기 수를 거듭 늘려가며 이제까지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정권 기관지 환구시보는 최근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위협했다. "대만 분리주의자들과 그 선동자들에게 경고할 시간이다. 전쟁은 진짜다." "미국과 민진당 당국이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중국 본토의 군사적 응징이 마침내 방아쇠가 당겨질 것이다. 이 경고가 단지 구두상의 위협이 아니라는 것은 시간이 증명해줄 것이다."[15] 간단히 말해서, 모든 자본주의 제국들이 두 번째 침체 위험에 직면하면서 중국도 — 미국 등 다른 제국주의 강대국들과 마찬가지로 — 점점 더 외부 위기를 유발하려는 유혹에 끌릴 수 있다.[16]

3. 투기적 부동산 부문의 거대한 비중, 하락하는 이윤율, 기업들을 도우려는 정권의 바람, 이 모든 것은 RCIT를 비롯한 맑스주의자들이 수년 전부터 설명해온 것을 다시 한 번 드러내 보여준다. 중국의 국가와 경제는 자본주의였고 자본주의이며 (노동자계급이 이 자본가 정권을 타도할 때까지는) 자본주의일 것이다. 스탈린주의 백치들과 사이비 트로츠키주의자들만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억만장자와 세계 최상위 독점자본 기업들을 가진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 또는 모종의 “노동자국가”라고 상상할 수 있다!

4. 이 모든 것은 "붉은 억만장자"와 "공산"당 간의 모두가 다 아는 긴밀한 관계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헝다그룹 총수 쉬자인 회장은 이 점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다. 쉬자인은 중공 당내 선두그룹과 두터운 유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 자신이 2018년 연설에서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내가 가진 모든 것과 헝다그룹이 이룬 모든 것은 당과 국가, 그리고 사회 전체가 부여한 것이다." [17] 탄탄한 연줄을 가진 중국 사업가 테스먼드 슴 (선둥·沈棟)은 최근 출간한 책 ("레드 룰렛")에서 백만장자, 억만장자, 정치인들의 뿌리깊이 썩은 유착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 [18] 다시 말하지만, 스탈린주의 또는 준 스탈린주의에 눈이 먼 사람들만이 이것이 "사회주의"라고 주장할 수 있다!

5. 끝으로, 헝다를 비롯한 부동산 재벌들의 파산 압박에 불안 초조해 하는 세계 주식시장의 겁먹은 반응은 중국 경제가 세계 자본주의의 강력한 요인이 되어 있는 것을 반영한다. 나폴레옹은 "중국은 잠자는 거인이다. 중국이 깨어나면 세계가 벌벌 떨 것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헝다 뉴스를 듣고 있는 세계 주식시장의 불안 초조 상태와 미·중 간 냉전이 세계정치에서 차지하는 중심 지위가 이 말을 부족함 없이 확인시켜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칭 트로츠키주의자들 (브라질 PSTU/LIT나 아르헨티나 PTS/FT 같은)이 중국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부인하며, 중국이 서방 강대국들에 대해 모종의 종속적인 지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 동지들에게 묻는다. "중국 말고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의 부동산 거품이 월가, 런던, 프랑크푸르트에 그런 불안감을 줄까요? 당치 않죠. 못 주죠! 하지만 헝다, 화양넨, 시닉은 주죠. 제대로 주죠!" 이것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에서 지배적 지위에 있는 나라와 지배 받는 지위에 있는 나라 간의 차이를, 제국주의 국가와 반(半)식민지 국가 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거둬 강조하건대, 사회주의자가 중국의 제국주의적 본질을 인식하지 않고는 변혁의 올바른 방향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한 인식 없이는 이들 국가 간의 어떤 분쟁에서도 혁명적 입장, 즉 이들 모두를 일관되게 반대하는 혁명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19]

부록

중국 이윤율 [20]



[1] Felix Richter: These are the top 10 manufacturing countries in the world, World Economic Forum, 25.2.2020, <https://www.weforum.org/agenda/2020/02/countries-manufacturing-trade-exports-economics/>; output measured on a value-added basis in current U.S. dollars.

[2] Michael Pröbsting: World Economy: Heading towards a Second Slump? 2 October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world-economy-heading-towards-a-second-slump/> [[세계경제: 현 대공황 내 두 번째 침체로 치달나?](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world-economy-heading-towards-a-second-slump/#anker_2)]; RCIT 아르헨티나 동지들의 다음 글들도 보라. Juan Giglio: A 13 años del Lehman Brothers y en el medio de la caída de Evergrande, 26.10.2021, <https://convergenciadecombate.blogspot.com/2021/09/a-13-anos-del-lehman-brothers-y-en-el.html>; Damián Quevedo, Evergrande, una burbuja a punto de explotar en nuestro continente, 5.10.2021, <https://convergenciadecombate.blogspot.com/2021/10/evergrande-una-burbuja-punto-de.html>

[3] RCIT는 중국 자본주의에 관한 많은 문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Anti-Imperialism in the Age of Great Power Rivalry. The Factors behind the Accelerating Rivalry between the U.S., China, Russia, EU and Japan. A Critique of the Left's Analysis and an Outline of the Marxist Perspective, RCIT Books, Vienna 2019, Chapter I,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anti-imperialism-in-the-age-of-great-power-rivalry/>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book-anti-imperialism-in-the-age-of-great-power-rivalry/>]; 같은 저자의 다음 책에 실린 글도 보라. the second edition of The Palgrave Encyclopedia of Imperialism and Anti-Imperialism (edited by Immanuel Ness and Zak Cope), Palgrave Macmillan, Cham, 2020, https://link.springer.com/referenceworkentry/10.1007%2F978-3-319-91206-6_179-1; China's transformation into an imperialist power. A study of the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aspects of China as a Great Power (2012),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4, <http://www.thecommunists.net/publications/revcom-number-4>; How is it possible that some Marxists still Doubt that China has Become Capitalist? (A Critique of the PTS/FT), An analysis of the capitalist character of China's State-Owned Enterprises and its political consequences, 18 September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pts-ft-and-chinese-imperialism-2/>; Unable to See the Wood for the Trees (PTS/FT and China). Eclectic empiricism and the failure of the PTS/FT to recognize the imperialist character of China, 13 August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pts-ft-and-chinese-imperialism/>; China's Emergence as an Imperialist Power (Article in the US journal 'New Politics'), in: "New Politics", Summer 2014 (Vol:XV-1, Whole #: 57)

[4] India Today: Explained: Why China's Evergrande crisis has sent global stock markets in panic mode, 21 September 2021, <https://www.indiatoday.in/business/story/china-evergrande-crisis-global-stock-markets-in-panic-mode-1855467-2021-09-21>

[5] 중국 부동산 부문에 관한 수치는,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미국인 분석가와 중국인 분석가 두 사람이 공동 발표한 매우 유익한 연구논문에서 따온 것이다.: Kenneth S. Rogoff and Yuanchen Yang: Peak China Housing, NBER Working Paper Series, Working Paper 27697, <http://www.nber.org/papers/w27697>

[6]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도 보라. Martin Wolf: The economic threats from China's real estate bubble, Financial Times, 5.10.2021, <https://www.ft.com/content/1abd9d4b-8d94-4797-bdd7-bee0f960746a>

[7] Bloomberg: China's banks downplay risks after Evergrande misses payments,

<https://www.thenationalnews.com/business/2021/09/23/chinas-banks-downplay-risks-after-evergrande-misses-payments/>

[8] 다음 로이터 통신에서 인용: What analysts have to say about Evergrande as default risks rise, 21 September 2021, <https://www.reuters.com/article/china-evergrande-debt-idCNL4N2QN127>

[9] William Pesek: Xi plots prudent response to Evergrande crisis, Asia Times, 4 October 2021, <https://asiatimes.com/2021/10/xi-plots-prudent-response-to-evergrande-crisis/>

[10] 다음에서 인용.Quoted in Alexandra Stevenson, Michael Forsythe and Cao Li: China and Evergrande Ascended Together. Now One Is About to Fall, Sept. 28, 2021, <https://www.nytimes.com/2021/09/28/business/china-evergrande-economy.html>

[11] World Bank: China Economic Update, December 2020: From Recovery to Rebalancing: China's Economy in 2021, Washington 2020, p. 28; Desmond Lachman: Is this China's Lehman Brothers moment? 21.09.2021, <https://thehill.com/opinion/finance/573102-is-this-chinas-lehman-brothers-moment>

[12] World Bank: China Economic Update, June 2021 : Beyond the Recovery - Charting a Green and Inclusive Growth Path, Washington 2021, p. 30

[13]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China / Hong Kong: The Beginning of the Counterrevolution. The new National Security Law represents a full-scale assault on democratic rights by the Stalinist-Capitalist regime! 1 Jul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hina-hong-kong-the-beginning-of-the-counterrevolution/>

[14] RCIT는 코로나19 반혁명을 그 시작 이래로 광범위에 걸쳐 분석해 왔다. 2020년 2월 2일부터 우리는 90편의 소책자와 논문, 기사, 성명에 단행본 책까지 발표했다. 이 모든 것을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별도 하위 페이지에 모아놓았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2019-corona-virus/>. 특히 다음을 보라. RCIT Manifesto: COVID-19: A Cover for a Major Global Counterrevolutionary Offensive. We are at a turning point in the world situation as the ruling classes provoke a war-like atmosphere in order to legitimize the build-up of chauvinist state-bonapartist regimes, 21 March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vid-19-a-cover-for-a-major-global-counterrevolutionary-offensive/>.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 공세를 가리는 덮개>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covid-19-cover-for-major-global-counterrevolutionary-offensive/>] 다음의 RCIT 2차 시국선언도 보라. Manifesto: “Green Pass” & Compulsory Vaccinations: A New Stage in the COVID Counterrevolution. Down with the chauvinist-bonapartist police & surveillance state - defend democratic rights! No to health policy in the service of the capitalist monopolies - expand the public health sector under workers and popular control! 29 July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green-pass-compulsory-vaccinations-a-new-stage-in-the-covid-counterrevolution/> [<“백신여권” & 백신접종 의무화: 코로나 반혁명의 새로운 단계>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green-pass-compulsory-vaccinations-a-new-stage-in-the-covid-counterrevolution/#anker_3]; 다음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COVID-19 Global Counterrevolution: What It Is and How to Fight It. A Marxist analysis and strategy for the revolutionary struggle, RCIT Books, April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covid-19-global-counterrevolution/>.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book-the-covid-19-global-counterrevolution/>] 이 문제에 대한 다음 우리의 첫 기사도 보라. Almedina Gunić: Coronavirus: "I am not a Virus"... but WE will be the Cure! The chauvinist campaign behind the “Wuhan Coronavirus” hysteria and the revolutionary answer, 2 Februar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wuhan-virus/> [<코로나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 히스테리 뒤에 숨은 배외주의 캠페인>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wuhan-virus/>]; Michael Pröbsting: The Second Wave of the COVID-19 Counterrevolution. On the ruling class strategy in the current conjuncture, its inner contradictions and the perspectives of the workers and popular resistance, 20 Jul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he-second-wave-of-the-covid-19-counterrevolution/>; 같은 저자: The Police and Surveillance State in the Post-Lockdown Phase. A global review of the ruling class’s plans of expanding the bonapartist state machinery amidst the COVID-19 crisis, 21 Ma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police-and-surveillance-state-in-post-lockdown-phase/>; COVID-19: The Great Barrington Declaration is indeed Great! Numerous medical scientists protest against the reactionary lockdown policy, 11 October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vid-19-the-great-barrington-declaration-is-indeed-great/>; Michael Pröbsting: COVID-19: The Current and Historical Roots of Bourgeois Lockdown “Socialism”. Police State and Universal Basic Income are key elements of the new version of reformist “War Socialism” of 1914, 19 December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ovid-19-the-current-and-historical-roots-of-bourgeois-lockdown-socialism/>. RCIT 아르헨티나 동지들의 다음 스페인어 기사들도 보라. Juan Giglio: La izquierda de la "Big Pharma", dejó de defender las libertades, 1 . 1 0 . 2 0 2 1 , <https://convergiadecombate.blogspot.com/2021/10/la-izquierda-de-la-big-pharma-dejo-de.html>; Juan Giglio: ¿Por qué la izquierda no cuestiona las políticas de la OMS? 8.9.2021, <https://convergiadecombate.blogspot.com/2021/09/por-que-la-izquierda-no-cuestiona-las.html>

[15] Global Times: Time to warn Taiwan secessionists and their fomenters: war is real, Global Times Editorial, 4 October 2021, <https://www.globaltimes.cn/page/202110/1235638.shtml>

[16] RCIT는 강대국들의 제국주의 간 패권쟁투에 대해 여러 차례 다룬 바 있다. 다음을 보라. RCIT document: World Perspectives 2021-22: Entering a Pre-Revolutionary Global Situation, 22 August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21-22/> [<세계 정세전망 2021-22년: 준 혁명적 세계정세 진입>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21-22/#anchor_14]; 다음도 보라. RCIT: The Meaning of the AUKUS Pact. The U.S. escalates the inter-imperialist Cold War against China and provokes the EU, 18 September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he-meaning-of-the-aukus-pact/> [<오커스 조약의 의미>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he-meaning-of-the-aukus-pact/#anchor_3]; Russia Fires Warning Shots against UK Warship in the Black Sea. Down with Cold Warmongering! No support for any imperialist Great Power - neither UK, US nor Russia! 24 June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russia-fires-warning-shots-against-uk-warship-in-black-sea/> [<러시아가 흑해에서 영국 군함에 경고사격하고, 영국은 사태를 부인, 축소하려 하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russia-fires-warning-shots-against-uk-warship-in-black-sea/#anchor_1]; 다음 두 팸플렛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A Really Good Quarrel". US-China Alaska Meeting: The Inter-Imperialist Cold War Continues, 23 March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us-china-alaska-meeting-shows-continuation-of-inter-imperialist-cold-war/> [<제국주의 간 냉전은 어떻게 바이든 하에서도 계속되고 있나>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us-china-cold-war-continues-after-alaska-meeting/>]; Servants of Two Masters. Stalinism and the New Cold War between Imperialist Great Powers in East and West, 10 July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ervants-of-two-masters-stalinism-and-new-cold-war/> [<두 주인을 섬기는 시종, 스탈린주의와 제국주의 신냉전>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ervants-of-two-masters-stalinism-and-new-cold-war/#anker_10; 이 문제에 관한 문서들이 더 있다. 다음 링크로 들어가서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및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global-trade-war/>.

[17] 다음에서 인용. Alexandra Stevenson, Michael Forsythe and Cao Li: China and Evergrande Ascended Together

[18] Desmond Shum: Red Roulette. An Insider's Story of Wealth, Power, Corruption, and Vengeance in Today's China, Simon & Schuster, New York 2021

[19] 제국주의 간 분쟁에 관한 우리의 강령적 접근법으로는, 다음을 보라. RCIT: Theses on Revolutionary Defeatism in Imperialist States, 8 September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ses-on-revolutionary-defeatism-in-imperialist-states/> [<제국주의 국가에서의 혁명적 패전주의에 관한 테제>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theses-on-revolutionary-defeatism-in-imperialist-states/>; 다음도 보라. chapters XVI to XX in the above-mentioned book by Michael Pröbsting: Anti-Imperialism in the Age of Great Power Rivalry.

[20] Michael Roberts: China at a turning point? 5 October 2021, <https://thenextrecession.wordpress.com/2021/10/05/china-at-a-turning-point/>